

가격 폭락 '위기의 나주배' 대책은

“정부 적극 수매로 농가 파산 막아야”

경남 하동·경기도 일대 재배면적 크게 늘어  
냉해·태풍피해 없어 수확량 10% 이상 증가

나주지역 경제를 지탱했던 나주배 산업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난 8일부터 이례적으로 나주배 가격이 폭락한 뒤 9일에는 구매자마저 없어 오전 한때 경매가 중단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농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 <가격 폭락 실태 및 원인> 나주배는 9일 오전 경매가 재개됐으나 지난해 추석에 비해 50% 이상 폭락한 15kg(16개~20개)상품이 2만원 내외에 낙찰돼 농가들은 생산비마저 건질 수 없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주지역은 전국 배 생산량의 18%를 차지하는 배 주산지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빨리 출하돼 전국 배시장을 선점해 온 만큼 나주배 가격 폭락은 전국 과일시장 판도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은 물론 경남 하동지역과 경기도 일대에도 매년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 이때문에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던 나주배가 효자 작목에서 애물단지로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수정시기에 날씨가 좋아 예년에 비해 최고의 착과율을 보였으며 냉해나 태풍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아 수확량이 10%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나주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배 재배지가 비슷한 현상으로 작황조조에 따른 대목이 예상돼 가격 폭락이 예견됐다.

<피해 상황 및 대책> 본보는 지난 8월 10일자 13면에 '나주배' 가격폭락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으나 나주시나 나주배 조합 등에서는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특히 9일 경매가 중단된 후 나주배조합측이 나주시에 가격 폭락 사실을 알렸으나 나주시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배조합은 현재와 같은 가격 폭락이 이어질 경우 올해 500억원 이상의 농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민들은 9일 또 추석 대목이 사실상 끝나 더 이상 추가 판매는 어렵다며 향후 출하되는 물량에 대한 정부 수매를 촉구하고 있다.

또 가격 폭락으로 당장 영농빚을 갚을 길이 막막해진 만큼 농민들의 연쇄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과잉생산과 소비부진으로 나주배가 추석대목을 앞두고 지난 해보다 50% 이상 가격이 폭락,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도시는 “찬성” 郡단위 농촌은 “글쎄요”

■ 지방행정구역 개편 설문조사

“도시지역은 ‘찬성’, 군 단위 농촌 지역은 ‘글쎄요’” 광주일보가 9일 지역구 국회의원,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한 시·군·구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처럼 도·농간의 입장차가 뚜렷이 갈렸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광주시 4개 구청장, 목포시장, 나주시장 등은 국가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위적인 행정구역재편이 통합대상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다 소규모 군단위 자치단체는 규모가 큰 자치단체로 흡수될 경우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재정규모가 적고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영광, 무안, 장흥, 보성, 곡성 등 단체장들은 이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뚜렷히 밝혔다.

서삼석 무안군수는 “행정구역

개편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보다는 농촌 지역 폐쇄화와 남악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행정구역이 광역화되면 소도시, 농·어촌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박광태 광주시장은 “수년 동안 개편논의가 제기됐지만 소모적인 논쟁만 불렀다”며 반대했

박광태 시장·박준영 지사 반대

광주 4개구·목포·나주 등 찬성

박준영 전남지사는 “문화·생활 등 실질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개편할 경우 불필요한 지역갈등이 생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경우 응답한 20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17명이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했다.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불을 지핀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인 탓도 있지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이상론에 동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의원들 역시 응답자 35명 가운데 23명(65.7%)이 찬성의사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입장

■광주시				
단체	찬	반	유보	비고
광주시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			

■전남도				
단체	찬	반	유보	비고
전남도		○		
목포	○			
여수				해외출장
순천				무응답
나주	○			
광양				무응답
담양				무응답
곡성		○		
구례			○	
고흥			○	
보성		○		
화순	○			
장흥		○		
강진	○			
해남	○			
영암	○			
무안		○		
함평				무응답
영광		○		
장성	○			
완도				
진도				
신안	○			

를 밝혔다. 설사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2년 후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나라, 전남도당 사고 지역당 의결

한나라당은 지난 8일 전남도당을 사고 지역당으로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재순 전 전남도당 위원장이 지난 7월17일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뒤 4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지만 선출기한이 남도록 선임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사고 도당으로 의결됨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해산되고 부위원장 및 청년·여성·홍보 등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30명이 해임됐다”면서 “사무총장 또는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대 정이사 선임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 임시회

광주시의회는 9일 조선대 정이사 선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1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김후진(민주·북구1)·양해평(민주·동구1)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선대 정이사 선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지연으로 인해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만여 재학생과 부속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진실 밝혀준 사법부에 희망 가져”  
선거법 무죄 강은태 의원

“더욱 낮은 자세로 남구와 광주시, 나아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강은태 의원(광주 남구)은 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실과 정의를 밝힌 사법부에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됐으며 광주시민이 저를 지켜준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강 의원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실제적 진실과 배후를 밝히는데 노력하기 보다는 허위 진술에 의존해 일방적으로 기소, 그동안 마음의 고통이 컸다”며 “그러나 진실은 밝혀진다는 광범한 진리를 믿고 마음을 추스려 재판에 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복당 문제와 관련, 강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적 고향이며 당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복당하겠다”며 “이윤석 의원 등 아직 복당이 이뤄지지 않은 무소속 의원들과도 복당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주·전남 지역 현안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 점을 감안, 광주·전남지역의 내년 국고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 종합여행기업

# 롯데관광 LotteTour.com

1577-3000

광주지사: 062-226-2601(구 도청 옆)

광주남구점 062-554-0033 | 군산점 062-263-0004 | 목포점 062-245-0036  
 순천점 061-755-7114 | 광주북구점 062-227-5310 | 진주롯데점 063-289-2855  
 막산점 061-543-3800 | 광주합동점 062-974-3050 | 진주시청점 063-262-3213

2008 한국서비스대상 6년 연속 대상수상!

대한항공/동방항공과 함께하는 황산기행 특가 시리즈~

## 황산 黃山 천하제일의 감동을 느끼다!

4-7월 5일~8월 7일

홍콩 전까지의 표정

[NO TIP] 홍콩, 심천 3일 ₩749,000부터

[NO TIP] 홍콩 3일 ₩789,000부터

북경 도착 초특가! 한화 항공·대한항공·중국민항

[정화] 북경, 만리장성 4일 ₩439,000부터

> [정화] 북경, 만리장성, 응징 4/5일 ₩639,000부터

정통상해, 황산

산아래 숙박 ₩499,000 | 정통상해 ₩599,000

정통상해, 황산, 항주

산아래 숙박 ₩529,000 | 정통상해 ₩629,000

4일 정통상해, 황산 [왕복버스] ₩499,000

5일 정통상해, 황산, 판도항동+정통상해 ₩699,000

가을 특선여행 인천출발

가을 특선여행 4일 ₩1,200,000-1,800,000

가을 특선여행 4일 ₩1,180,000-1,980,000

가을 특선여행 4일 ₩1,180,000-1,980,000

가을 특선여행 4일 ₩1,180,000-1,980,000

가을 특선여행 4일 ₩1,200,000-1,800,000

가을 특선여행 4일 ₩1,180,000-1,980,000

가을 특선여행 4일 ₩1,180,000-1,980,000

가을 특선여행 4일 ₩1,180,000-1,980,000

유림/대안주 인선출발

유림/대안주 인선출발

유림/대안주 인선출발

유림/대안주 인선출발